

# 광우병: 소가 미친 다른 이유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이 문 한

2008년 4월 17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FTA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협상 타결을 큰 선물인양 자랑한 당시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였다. 그러던 중 4월 29일 MBC PD수첩에서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방영되었다. 이후 각종 괴담이 SNS를 통하여 난무하였고,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가 열리면서 촛불 시위가 석 달 가까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광우병의 실상을 왜곡하거나, 신성한 식품을 이념으로 오염시키는 행태를 보면서 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광우병의 실상을 설명해도 괴담을 더 믿고 싶어 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원고를 쓰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필자는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인간 광우병이 보고된 2000년대 초 의대 모 교수와 함께 광우병 관련 대형 연구과제를 농림부에 제안하였다. 제안서를 검토한 농림부 관계관은 “우리나라에서 문제시되지 않는 광우병 연구를 정부 예산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필자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재임 중이던 2002년과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재임 중이던 2006년 광우병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PD수첩이 미국 채식주의자들이 만든 홈페이지의 기립불능우(앉은뱅이 소, Downer cow) 관련 동영상을 광우병인 것처럼, 그리고 크로이츠펬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으로 사망한 사람을 인간 광우병으로 둔갑시킨 의도적인 왜곡 방송이었다.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PD수첩 제작진 사이에 주고 받은 전자우편 내용과 번역에 관여하였던 사람의 명백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광우병 사태는 역사에 회자될 사건임에도 이에 대한 백서조차 발간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 3두, 그 외 유럽권에서 4두의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늙은 소에서 발병한 비정형(非定形) 광우병이었다.

면양 스크래피는 200년 전 스페인에서 처음 보고 되었다. 그 원인을 몰라 면양 도축 부산물(이하 육골분 사료)을 소를 비롯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1980년 영국 정부는 육골분 사료 제조공정 변경을 허용하였다. 이후 4년이 경과한 1984년 말, 괴질에 걸려 비틀거리는 소 한 마리가 BBC에 방영되었고,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잠복기가 4~6년인 미친 소, 광우병의 최초 출현이다. 이 병에 걸린 소를 부검한 결과, 뇌줄기(brain stem)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스펀지 모양의 소견을 보여, 소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라 명명하였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정신이 멀쩡하다. 다만, 뇌줄기의 손상으로 빛과 소리에 민감하고, 평형 감각을 상실하여 비틀거릴 뿐이다. 소는 미치지 않았다.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다. 소가 미친 첫 번째 이유다.

영국에서 생산한 육골분 사료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되면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광우병이 확산되었다. 2008년 4월 말 현재 25개국에서 190,348두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총 발생 두수의 99.97%(190,294두)가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발병하였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만 97.84%(186,184두)가 발병하였다. 1984년 광우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영국 정부는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육골분의 처리공정 변경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고, 1988년 7월부터 되새김동물 유래 육골분의 되새김동물에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 조치를 취한 후에도 광우병 발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 37,260두를 정점으로 매년 40~60%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114두, 2007년에는 67두가 발병하였다. 육골분의 처리공정을 바꾼 4년 후부터 광우병이 발병하였고, 육골분 사료의 사용을 금지한 4년 후부터 광우병 발병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정확히 잠복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료조치를 엄격히 지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없어지거나 산발적으로 극소수 발병할 질병이다. 과학사(科學史)에나 남을 병이다. 광우병 발병이 감소함은 소에게도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소가 미친 두 번째 이유다.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이 발병한 10년 후부터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 영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은 인간이 만든 질병이다. 인간에 대한 동물의 반란이다. 그런데 인간은 소를 원망한다. 소가 미친 세 번째 이유다.

인간 광우병은 현재까지 세계 11개국에서 207명이 발병하였고, 영국에서만 166명이 발병하였다. 그러나 사료조치 이후 광우병 발생이 감소하면서 2007년에는 1명도 발병하지 않았다. 이는 도축되는 소에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을 지정하여 제거한 인간광우병 예방 정책이 유효하였음을 의미한다.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발병하지 않는다. 하지만 잠복기가 5~20년이니 앞으로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형 프리온은 회장 원위부의 파이어판(Peyer's patch)에서 흡수되어 림프관을 통하여 이동하다가 림프조직인 편도에 축적된다. 한편으로는 회장 원위부에 분포하는 자율신경계를 통하여 아주 느리게 중추 쪽으로 이동하면서 신경절(삼차신경절, 척주신경절), 눈과 중추신경계(뇌, 척수)에 축적된다. 이들 부위가 SRM이며, 여기에 변형 프리온 대부분이 존재한다. 그 이동 경로를 시기적으로 보면 30개월령 이하에서는 회장 원위부와 편도에서, 그리고 30개

월령 이상에서는 이들 부위 외에 위에서 지적인 SRM에서 발견된다. 30개월은 이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인간 광우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설정된 소의 나이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인 소를 늙은 소라고 한다. 소 나이 30개월이면, 사람 나이 10살에 해당된다. 어린이가 조숙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10살짜리 어린이가 늙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소는 억울하다. 소가 미친 네 번째 이유이다.

그 동안 소는 발톱과 가죽을 빼고는 모두 맛있게 먹어 주는 한국 사람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는 가난이 빚은 음식문화이다. 그런데 30개월령 이상 소의 고기를 쓰레기라고 한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업신여긴다. 소가 미친 다섯 번째 이유이다.

미국에서는 3마리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였다.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이고, 2마리는 사료조치를 취한 1997년 이전에 태어난 소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천5백만 마리의 소를 도축한다. 사료조치 이후에 태어나 도축된 소 4억5천만 마리 중에서 광우병은 1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도축되는 소의 1%에 대하여 광우병을 검색하는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도축되는 소 1백만 마리 중에서 1마리의 광우병 소를 검색할 수 있는 확률이다. 미국에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발병하고 있다면 4년 동안 적어도 광우병 소 180마리가 검출되었어야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조직 1mg을 먹인 소 15마리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감염력이다. 그런데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소 중에서는 1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미국의 소 사료 중에는 1mg의 변형프리온도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기립불능우(얇은 뺨이 소)는 어느 나라에나 발생한다. 대부분이 대사성 질병이다. 광우병을 검색할 때에는 신경증상을 보이는 소, 특히 빛과 소리에 예민한 소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광우병 검출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미국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많이 있다고 한다. 미국 소가 미친 여섯 번째 이유이다.

광우병은 젖소와 씨소와 같은 늙은 소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씨소는 새끼를 낳고, 젖소는 젖을 착취당하면서까지 사람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늙었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은 쓰레기라고 한다. 소는 말한다. 궤변이지만 늙은 소일 수록 검증된 소일 수도 있지 않은가? SRM을 모두 제거하니 더 안전할 수도 있지 않은가? 어린 소의 고기인지 늙은 소의 고기인지는 쇠고기의 육질을 가늠하는 잣대이지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늙은 소가 미친 일곱 번째 이유이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의 60%는 정육으로, 40%는 분쇄육으로 팔린다. 이 중에서 진짜 늙은 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이내이다. 정육과 분쇄육으로서 그 용도만 다를 뿐이지 SRM을 제거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간 광우병을 일으킬 위험은 동일하다. 모든 소가 이름표를 붙이고 있지 않다. 소의 나이는 치아로 짐작할 수 있다. 출생 후 24-30개월이 되면 아래턱 가

운데 젓니 한 쌍이 영구치로 바뀐다. 영구치가 보이면 30개월 이상으로 분류한다. 24개월에서 29개월 령인 소도 늙은 소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고기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소는 역올하다. 소가 미친 여덟 번째 이유이다.

사람이 실성하면 실없이 웃는다. 우리 정부는 고기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다. 송아지의 출생과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귀에 이름표를 붙이고, 털주머니(모낭)를 보관하여 DNA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고기의 부정유통을 막겠다고 한다. 얼마나 속이고 속임을 당하면 이런 정책을 써야 할까? 외국인이 알까 봐 망신스럽다. 과학의 남용이다. 소가 한번 웃었다. 전염성 질병(infectious disease)과 전달성 질병(transmissible disease)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그 의미의 차이를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광우병이 전염병인지 아닌지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소가 또 한번 웃었다. 꼬리뼈를 포함한 뼈의 골수에서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두개골과 척주를 SRM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뇌와 척수를 도축과정에서 제거할 때 변형 프리온이 오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차신경절과 척주신경절이 두개골과 척주에 각각 붙어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은 모든 뼈를 위험물질로 본다. 답답하다, 소가 또 한번 웃었다. 미국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고 미국에는 광우병 소가 많은 것으로 한국 사람은 생각한다. 소가 다시 웃었다. CJD에 걸려 죽은 젊은 여성의 장례식 장면을 보고, 미친 소의 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생각한다. 소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다. 소가 자주 웃는 걸 보니 실성했나보다.

2004년 1월 캐나다산 수입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였다.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강화하여 30개월령 이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갈비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쇠고기 중 납탄과 같은 이물질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구입한 X레이 장비를 동원하여 뼈 조각까지 검사하였다. 식육 위생에는 문제가 없지만 뼈 조각이 검출되었다. 그러니 협약위반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과학 오용이다. 그런데 어느 날 30개월령 이상, 뼈 있는 고기까지 수입이 허용되었다. 더욱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OIE에서 광우병 관리 등급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협약하였다. 우리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검역주권 포기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협약에 참여하였던 핵심 공직자들은 왜 말 바꾸기를 해야 했을까? 어느 것이 과학에 바탕한 말일까? 결론은 과학이 오용되어, 국가 사이의 신뢰가 훼손된 결과이다. 미국이 다시는 시비를 걸지 못하게 뼈기를 박은 것이다. 일본, 중국, 대만에 앞서 서둘러 협정한 것도 불공정 협정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일본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보다 강화된 SRM 관리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협정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이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초기에는 SRM에 대한 개념이 느슨하였다. 따라서 영국 국민의 절반인 3천만 명 이상이 변형 프리온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166

명만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 꼴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광우병의 중간 장벽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인간 프리온을 발현시킨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한 언론매체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국제프리온학회와 국내 식품안전 관련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답한 외국인 과학자의 91%가 미국산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한 반면, 국내 과학자는 67%만 안전하다고 하였다. 왜 외국인 과학자와 우리나라 과학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까? 언론의 힘을 다시 실감한다. 미국은 30개월령을 기준으로 SRM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EU국가에서는 20개월령 이하, 30개월령 이하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누어 SRM 관리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러면 유럽산 쇠고기가 미국산 보다 더 안전할까? 유럽지역에서는 아직도 광우병이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에서 20여 두의 소에서 20개월령 전후하여 비정형 광우병이 발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이다. 광우병이 계속 발병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더 강화된 SRM 제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급수가 다른 사람이 바둑을 둘 때 옷돌(치수)을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옷이 기름으로 더러워지면 드라이클리닝을 하여야 하고, 먼지가 묻으면 털는 것만으로 옷은 깨끗해진다. 따라서 이들 EU국가와 미국 사이의 쇠고기 위험 정도는 비슷하다. 그러면 어린 소일수록 더 안전한가? 아니다. 월령에 따라서 SRM을 차등하여 제거하면 20개월령 이하인 소나 30개월령 이상인 소의 고기는 위험 정도가 비슷하다. 물론 유럽산 쇠고기나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위험은 비슷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1997년 사료조치를 취하기 전에 태어난 소 중에서 현재까지 기르고 있는 소는 약 2백두로 추정된다. 이들 소는 3년, 길어도 5년 이내에 모두 도축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소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만약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소 중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미국은 자국민으로부터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다. 미국은 추가로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국정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묻는다. 만약 앞으로 미국에서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소 중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을 경우,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 것인지?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협약조항을 핑계할 것인가? 위험정보 교류에 소홀했던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그러기에는 그 파장과 상처가 너무 크다. 도박을 보는 듯하여 참으로 조마조마하다. 광우병 시계는 이제 새벽 4시를 지나고 있다. 흑자는 곧 동이 틀 것이라 하고, 흑자는 해가 보이지 않으니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다고 한다. 흑자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니 방심은 금물이라고 한다. 지금도 광우병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이후 선진국에서는 1) 소비자 중심으로, 2) 전문가에 의하여, 3)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갖추었다. 과학적인 관리란 위험분석의 시행을 의미한다. 위험분석은 위험평가, 위험관리 그리고 위험정보 교류로 나누어진다. 위험관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위험정보 교류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시스템이 없다. IT 강국임을 자임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에서는 온갖 괴담만 무성할 뿐이다. 한국에서의 광우병 파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정부는 인수공통질병 관련 미생물 오염 등의 사유로 쇠고기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자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부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쌓고 있다. 혼란은 순간이고 신뢰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식품안전 사고는 소홀히 보고, 식품안전 사건에는 민감하다. 그리하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동안 관련 식품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과학에 근거하는 이성엔 희박하고, 감성에 치우친다. 감성의 냄비는 쉽게 식는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의식이 식품안전 관리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을 어렵게 한다. 식품안전 정책은 안심정책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철저히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는 길이다. 둘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철저히 감추고,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식품은 신성한 노동의 산물이고 숭고한 생명의 희생물이다. 먹거리를 혐오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풍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먹거리는 언제나 감사의 대상이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기름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많은 곡물이 사용되고 있다. 사료 값도 지난 1년 동안 2배로 올랐다. 축산을 비롯한 농업 전반이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식량자원을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만이 유일한 살길이다. 가축 질병방역과 축산식품 안전성관리는 한 묶음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축산은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병들고 있다. 인수공통질병은 어느 것 하나 근절된 것이 없다. 악성 질병이 발병하면 직접 경비만 2, 3천억원씩 소비된다.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6, 7천억원을 상회한다. 질병 예방과 예찰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생산 중심에서 식품 안전과 질병 예방 위주의 정부 조직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검역주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수의진료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자가진료의 허용에 의하여 야기된 각종 질병으로 흐트러진 축산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공개념의 질병진료 시스템을 검토해 봄직하다. 그리고 도축장의 도축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008년 6월 13일 식품안전기본법이 공포되어 12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에는 위험분석, 즉 위험평가, 위험관리 그리고 위험정보 교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야 과학적인 식

품 안전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본받아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설치하였다. 우리는 식품안전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은 일본 것을 모방하고 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식품 안전관리 중진국이다. 어느 고위 외교관이 한국 사람은 과학에 대하여 더 공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와서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체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옳은 말 아닌가? 물론 고위 외교관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면이다. 현자는 충고를 소중히 여긴다.

면양과 여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에서 변형 프리온의 위험을 알리는 많은 연구결과가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로 미루어 소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추정은 그저 추정일 뿐이다. 먼저 기술한 바와 같이 사료조치로 광우병은 줄고 있고, SRM 관리로 인간광우병도 줄고 있다. 나무는 숲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지만, 나무에 집착하여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아니 된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3년 정도 더 강화된 사료조치와 SRM 관리 정책을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필자에게도 있다. 식품 안전관리 정책은 편익(benefit)과 위험(risk)의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니, 이에 상응하게 편익성에 비중을 더 두는 정책을 미국정부는 선택한 듯하다. 인간 광우병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미국에서 쇠고기의 소비는 줄지 않았다. 미국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럽다. 필자는 지난 30여년 이상 식품안전성 분야에만 종사하였다. 필자의 명예를 걸고 말한다. 쇠고기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

우공(牛公)이여! 내세에 환생하면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나라에서 태어나게. 아니면 인도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팝에 쇠고기국을 소원하는, 먹거리의 소중함을 아는 지상 낙원에서 태어나게나.